

천일염 재해보상 규정 현실성 없다

염전 유실·매몰, 소금창고 파손으로 제한...지원금도 쥐꼬리 최근 호우로 염전 31개소 침수·소금 550t 녹아도 '보상 막막'

천일염 생산자들이 가격폭락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재해로 인해 염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규정도 현실성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염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과 해수(海水)에 보관된 함수(鹹

水·염판에서 염도를 높인 바닷물) 등 생산물과 중간생산물은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6월말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최대 384mm의 비가 쏟아져 31개소의 염전이 침수되고, 소금창고에 저장된 550t의 소금이 빗물에 녹아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받을 길이 없다.

또 염전의 유실 및 매몰 소금창고 파손의 경우 시설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염전 바닥의 경우 타일로 시공할 경우 ㎡당 2만원, 장판은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재시설을 위한 보상액은 고작 매몰은 ㎡당 188원, 유실은 377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수축산업은 농약대금과 임식비 등의 수준에서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금은 전혀 없다"면서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도 수년째 이어져 오는 소

금가격 하락은 소금 생산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20kg들이 소금 1포대 가격은 2000원 후반대로 1만원을 넘었던 2011년의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염전 한편(3000평)의 연간 생산액은 현 시세대로라면 1500여 만원에 그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소금과 함수에 대한 보상 규정과 재난복구 지원금의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기준 전국 소금 생산량 31만 중 74%인 23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업체의 77%인 842개소가 있는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이다.

주춘경 기자

내년 대입 수시모집 76.2%...역대 최고

원서접수 9월 10일~14일까지

2019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2019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7478명으로 2018학년도(34만9776명)보다 2298명 감소했다. 반면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도 26만 8920명에서 26만4691명으로 5771명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인원 비율은 2018학년도(74%)에서 76.2%로 2.2%포인트 높아졌다.

수시모집 인원의 86.2%(22만 8157명)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으로 선발된다. 이는 전년(22만3712명)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순출전형 모집 인원은 1만3268명으로 2017학년도(1만2961명)보다 307명 증가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0~1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 합격자는 12월 14일까지 발표되고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6회로 제한(경찰대·광주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제외)되고 복수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 1개 대학에만 등록할 수 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뉴스스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광양시기후환경 네트워크(대표 소오섭)는 24일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13개 환경단체와 동광양리어스 등 봉사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쿨맵시 및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출근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3 시험지 유출-불법과외' 경찰수사 따로따로

고3 내신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불거진 불법 과외학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다른 경찰서에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있는 서부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했으나 시험지 유출과 연관성을 배제하고 있어 불법 과외학원이 소재한 남부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는 A군이 과외교사의 조력 없이도 어머니가 유출한 이과

수학 시험문제로 혼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A군과 어머니 B(52·여)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과외학원 강사를 조사하기 어렵고 수사에 실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A군의 어머니 B씨는 "아들을 의대 보내려고 하는데 수학실력이 부족하다"며 학교 행정실장에게 시험지 유출을 제안했다.

A군은 휴업인 지난 8일 기숙사에서 나와 어머니로부터 유출된 시험문제 편집본을 전달받아 불법 과외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

고사 시험지까지 전 과목이 유출된 점으로 미뤄 A군이 학원에서 과외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시험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청은 '광주의 8학군'으로 불리는 봉신동에 위치한 이 불법 과외학원을 폐쇄할 경우 부유층 과외와 외의 실제까지 밝혀낼 수 있는 기회인 데도 경찰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시험지 유출사건 피의자가 지수하고 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보한 지 14일째인 데도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인호 기자

광양시 아파트 단지, 폭염속 정전 잇따라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전남 광양시에서 정전사고가 잇따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도2호선(태극변전소~광양변전소) 주변을 따라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광양 중동 일부지역인 성호2-1차아파트와 호반아파트 일부, 성황동, 도야동, 흥플러스 일원 아파트 등 주민 1791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진상면 진지역과 대규모 쇼핑몰이 위치한 광양을 터레리 1F스퀘어 일원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긴급복구 공사가 진행중이다.

광양시는 이날 한낮 기온이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정전이 지속되고 사고가 잦을 경우 냉동식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과 식당가, 횡집 등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전력회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성인오락실서 금품 훔친 40대 남매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6)씨와 A씨 여동생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매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북구 모 성인오락실에서 업주가 카운터 의자 위에 올려둔 현금 42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게임기 전원을 켜던 업주에게 '특정 기기에 3만 원을 투자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던 사이 A씨가 가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 시보조금 횡령 조합 이사장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진흥자금(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조합 이사장 A(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시 위탁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계약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5회에 걸쳐 보조금인 시 위탁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계약업체에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 150만 원을 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중 광주시로부터 보조금(국비·시비 각 50%씩) 14억700만 원을 지원받아 관광기념품전 등의 위탁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횡령한 전북 지역 해당 조합 이사장 B(43) 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차량 부품 야적장 불...타는 냄새 도심 확산

광주지역 한 차량 부품 보관 야적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매캐한 연기가 도심으로 확산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오후 9시13분께 광주 서구 벽진동 자동차 부품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야적장 옆 수산물 가공업체 창고까지 옮겨붙은 불은 각종 자동차 부품과 폐기물, 김 등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0시31분께 초기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 부품과 폐기물이 타면서 발생한 매캐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도심으로 번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상무지구 등지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야적장 화재를 알리는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 25대와 소방관 70여 명 등이 동원됐다. 불이 난 야적장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정리를 마치는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학 부재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